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10월 도매 물가, 2022년 이후 가장 빨리 올라
- CNBC: 연준, 내년부터 10월 금리 결정 건너뛴다

[금융]
- CNBC: 10년물 국채금리 5.15% 돌파
- YahooFinance: 앤트로픽, 이달 19일 상장…티커명 'ANT'로
- Bloomberg: 젠슨 황 퇴진, 아시아 AI 업계에 큰 파장
- Bloomberg: 엔비디아 차기 CEO 하마평 7인

[인공 지능]
- 이코노미스트 “AI 거품 붕괴 가능성...시스템적 금융위기는 낮아”

[주택]
- WSJ: 미 10월 기존주택 판매 5.5% 급감…16년 만에 최저치

[미중 관계]
- Bloomberg: 젠슨 황 퇴진, 미·중 AI 칩 규제 정면충돌 가능성…중국 반도체 자립 가속화
- Bloomberg: 중국, ‘자동차 초강대국’으로 크게 바뀌어

[KMI 공급망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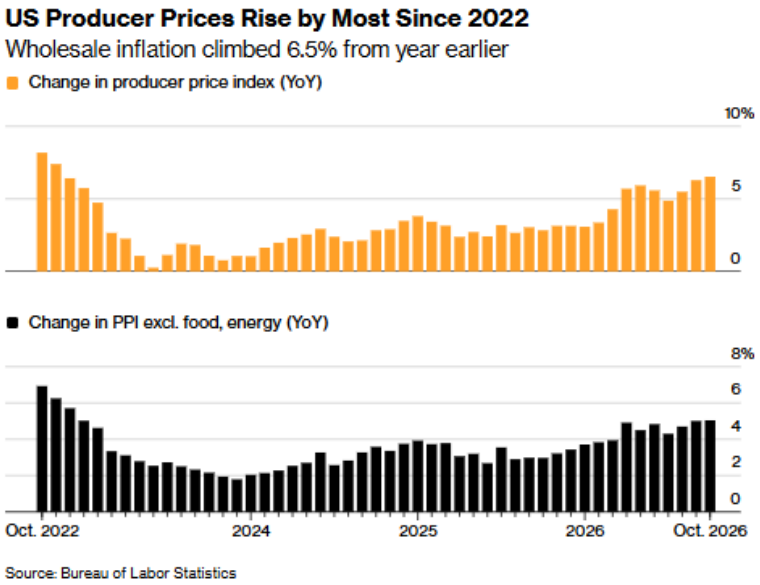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Wholesale Inflation Picks Up to Fastest Pace Since 2022

미 10월 도매 물가, 2022년 이후 가장 빨리 올라

- 미국 10월 도매 물가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25년 10월 대비 6.5%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 보다 낮은 0.3% 올랐다.
- 이번 연간 PPI 급등은 올해 공급 요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견조한 수요가 인플레 압력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운송·창고 비용이 다시 크게 뛰었으며 식료품 가격 역시 상승했다.



기사

CNBC: In a policy switch, the Fed says its October 2027 meeting will not see a vote on interest rates
연준, 내년부터 10월 금리 결정 건너뛴다

- 연준 2027년 10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변경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는 2026년의 8차례에서 7차례

로 줄어든다.

- 연준은 12일 발표를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년 10월 26~27일 열리는 정례 회의를 금리 결정 대신 '광범위한 통화정책 전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비중을 줄이려는 케빈 워시 준 의장의 연준 개혁 구상의 일환이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10-year Treasury yield moves to 5.15% as traders weigh producer price report
10년물 국채금리 5.15% 돌파

- 오늘 금요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음에도 미 구조적인 인플레가 꺾이지 않아 10년물 국채금리는 5% 선 위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 각종 대출 금리의 기준점인 10년물 금리는 5 베이시스 포인트 5.15%를 넘어섰다.
- 단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872%를 기록했으며, 장기 30년물 금리는 5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5.481%에 거래됐다.

SYMBOL	COMPANY	YIELD	CHANGE
US10Y	U.S. 10 Year Treasury	5.133%	+0.03
US1M	U.S. 1 Month Treasury	4.017%	-0.016
US1Y	U.S. 1 Year Treasury	4.603%	-0.039
US2Y	U.S. 2 Year Treasury	4.844%	-0.02
US30Y	U.S. 30 Year Treasury	5.467%	+0.037
US3M	U.S. 3 Month Treasury	4.23%	-0.009
US6M	U.S. 6 Month Treasury	4.446%	-0.015

기사

YahooFinance: Anthropic IPO: Claude maker to begin trading on Thursday, Nov. 19
앤트로픽, 이달 19일 상장…티커명 'ANT'로

- AI 모델 '클로드(Claude)' 개발사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오는 18일 공모가를 확정한 뒤, 19일 티커명 'ANT'로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지난달 말 증권신고서(S-1)를 제출한 앤트로픽의 이번 상장은 인공지능(AI) 투자 열기를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또한 내년 초 상장이 예상되는 경쟁사 오픈AI(OpenAI)의 증시 데뷔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WSJ: Jensen Huang’s Fall Costs Asia an A.I. Ambassador to the U.S.
젠슨 황 퇴진, 아시아 AI 업계에 큰 파장

- 이번 주 엔비디아 CEO직에서 물러난 젠슨 황의 퇴진이 아시아 AI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한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 국가 중심의 '소버린 AI(주권 AI)'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던 그는 각국 정·재계와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었다.
-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 기술 업계의 연결고리로 평가받았으나, 중국 간스파이 의혹 여성과의 관계가 폭로되며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 외신들은 그의 부재로 아시아 AI 전략에 공백이 생기는 한편, 중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

WSJ: 7 People Nvidia Could Consider for Its Next C.E.O.
엔비디아 차기 CEO 하마평 7인

- 헤드헌터와 애널리스트 등이 꼽은 차기 CEO 후보군 7명은 다음과 같다.
- Colette Kress: 임시 CEO로 선임된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회사 운영과 월가 소통에 능통하지만 AI 기술 전문성 부족.
- Ian Buck: AI 생태계의 핵심인 '쿠다(CUDA)'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엔비디아 부사장으로, 데이터센터 고객사 및 워싱턴 정가와 접점이 넓으나 대규모 경영 경험이 적다.
- Tim Cook: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추천한 전 애플 CEO로, 경영 능력은 검증됐으나 AI 분야 관여도가 낮고 66세의 고령이라는 점.
- Johny Srouji: 애플의 자체 칩 설계를 이끈 하드웨어 수석부사장으로, 반도체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데이터센터용 AI 칩 경험과 대외 인지도 부족.
- Rene Haas: 엔비디아 근무 이력이 있는 Arm 홀딩스 CEO로, 회사 내부 사정과 황 전 CEO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 Forrest Norrod: 경쟁사 AMD의 데이터센터 AI 칩 사업을 총괄하는 수석부사장으로, 업계 내 신망이 두텁고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
- Charlie Kawwas: 구글 등의 맞춤형 AI 칩 개발을 돕는 브로드컴 반도체 부문 사장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AI 반도체 전문가.

기사

[인공 지능]

TheEconomist: Why you should expect an AI crash
이코노미스트 “AI 거품 붕괴 가능성...시스템적 금융위기는 낮아”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커버스토리를 통해 인공지능 열풍이 닷컴버블과 같은 증시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치명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 이 주간지는 엔비디아 주가 하락과 민주당의 규제 움직임, 다음 주 상장하는 앤트로픽의 수익성 검증을 거품 붕괴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무료 모델에 가까운 중국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가 6개월 수준에 그쳐 수익 모델을 입증하지 못하면 투매가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과거 부채 기반 거품과 달리 현재의 AI 투자는 빅테크의 현금흐름과 자기자본 위주로 이뤄졌고 금리 인하 여력도 충분해 2001년 수준의 얕은 경기침체에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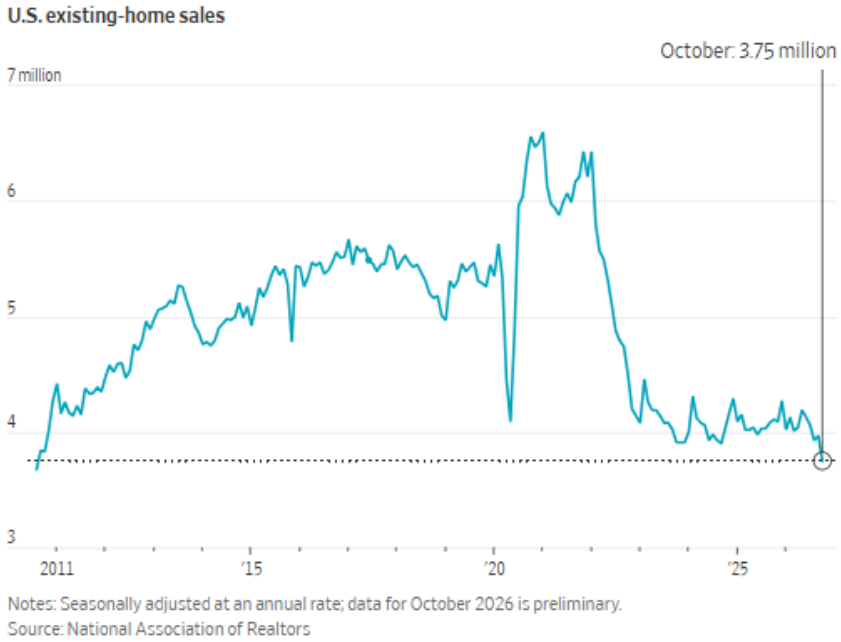
- 매체는 시장 부침보다 인간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내는 단계' 진입과 정치적 반발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주택]

WSJ: Home Sales in October Plummet to 16-Year Low
미 10월 기존주택 판매 5.5% 급감…16년 만에 최저치

- 미국 10월 기존주택 판매량이 전월 대비 5.5% 감소한 연율 3백75만 채(계절 조정치)를 기록하며 2010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하락 폭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크다.
- 전년 동월 대비로는 8.8% 줄어 202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기사

[미중 관계]

Bloomberg: Jensen Huang Exit Sets Up US-China Showdown Over AI Chip Curbs
젠슨 황 퇴진, 미·중 AI 칩 규제 정면충돌 가능성…중국 반도체 자립 가속화

-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퇴진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해 온 업계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미·중 간 AI 칩 규제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 현재 미 의회가 초당적 수출 통제 법안을 연말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해 추진 중이며, 연방 상무부 역시 중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 접속을 통한 미국산 첨단 AI 칩 이용을 차단하는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외신들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AI 기업들에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과 기술 국산화를 더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

Bloomberg: China’s Improbable Transformation Into an Automobile Superpower
중국, ‘자동차 초강대국’으로 크게 바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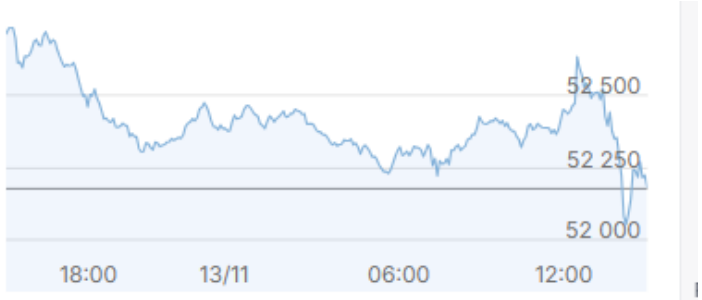
- 1990년대 WTO 가입 당시 해외 브랜드 공세로 힘들 펴지 못했던 중국 자동차 산업이 25년 만에 글로벌 시장을 위협하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계 최대 규모 내수 시장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결합해, 가격 경쟁력과 첨단 기술을 갖춘 수많은 토종 전기차 브랜드가 탄생했다.
- 현재 중국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며(미국은 7.4% 비중), BYD·Geely·Chery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하며 서구 완성차 업계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KMI 공급망 브리핑]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고조…유조선 연쇄 피격 및 미·이란 군사 긴장 격화

-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초대형 유조선 2척 무력화를 비롯해 인근 해역 유조선 화재 및 피격이 잇따르며 해상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란은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복귀 불가와 7개 재개 조건을 선언하고 오만 내 항행지원 시설까지 타격했으며, 피격 선박의 대규모 기름 유출로 우주에서 관측될 정도의 해양오염이 발생해 UAE 라스알카이마 해변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 역내 무력 충돌도 확산 양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파이프라인과 얀부 항구, 아람코 시설을 공격해 사우디가 미사일·드론 요격에 나섰고, G7은 사우디 자위권 지지와 이란의 후티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강대강 대치도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불필요 및 해협·이란 자금 확보를 주장하자, 이란 안보수장은 미군 공격 시 유럽 내 미군 기지까지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하면서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해 3,020포인트를 돌파했고, 아시아 정유사들은 중동 대신 아프리카산 원유 확보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편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레거시 시스템 해킹 피해와 함께 해커로부터 500만 달러 규모의 몸값(랜섬)을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A 30	52,190.50	-108.6	-0.21%
USA 500	7,515.40	-77.6	-1.02%
US Tech 100	27,654.20	-635.0	-2.24%
Dow Jones	52,160.41	-136.68	-0.26%
S&P 500	7,515.35	-77.60	-1.02%
S&P 500 VIX	20.47	+1.77	+9.47%
Dollar Index	103.26	+0.166	+0.16%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375	-25/32	5.466	0.037
10-Year Note	5	0/32	5.136	0.002
7-Year Note	4.875	0/32	5.036	-0.006
5-Year Note	4.75	0/32	4.964	-0.010
3-Year Note	4.625	1/32	4.913	-0.034
2-Year Note	4.625	1/32	4.857	-0.033
1-Year Bill	0	-1/32	4.605	-0.029
6-Month Bill	0	-1/32	4.444	-0.023
3-Month Bill	0	0/32	4.224	-0.012
1-Month Bill	0	2/32	4.017	0.067

View Treasury Quotes Page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37.80	1,475.86	836.83	200.45	1.1051	103.34
+1.30 (0.10%)	-1.57 (0.11%)	+0.76 (0.09%)	+0.18 (0.09%)	-0.0040 (0.36%)	+0.17 (0.16%)
11. 14. 01:03 ● 실시간	11. 14. 01:03 ● 실시간	11. 14. 01:03 ● 실시간	11. 14. 01:03 ● 실시간	11. 12.	11. 13. 10:56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37.80
1,337.80 원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